

송진파

① 송진파 선생은 원릉병감 연해주에서 1914년에 한생하시였다. 함흥에서 고종 42년인 1937년에 원릉병감 블라지워스도크에서 한인 사대를 필하시였다. 같은해에 강제 어구를 당하여 카사흐스한, 할디쿠르간주, 우스도베시에서 1948년까지 고종 고장으로 계속 일하시였다.

1948년에 조선 공산당 중앙 위원회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 국제 공산당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파견받았다.

북한에 도착하여 송진파 선생은 1948부터 인민 교육성에서 1950년까지 일하시고, 1950년 노동 조합장이 일어나 후퇴시기가 닥쳐오자 송진파 선생은 권근되어 문화선정 산하 제국서관까지도국에서 국장으로 계시였다. 조선 전쟁이 끝난 1954년 부터 1957년까지 즉 조선으로 귀국할 때까지 북한 "새조선" 잡지사 책임주필로 일하시다가 사상검찰 운동에 걸리어 노동당 대열내에서의 당로선을 위반하는 반당분자들을 형성한다는 당 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노동당 대열에서 출당을 당하시고 1957년 10월에 다시 북한에 귀국하여 모스크바 조선 공산당 중앙에서 우로베크 공화국, 리유젠스 고급당 학교에 파견 받고 도착하였다.

2.
송진파 선생의 유행으로 경상진, 기척북 정동행, 박태섭, 김일 등지들이 같이 귀국하였으나 정동행 선생은 하유권은 고급당학교에서 공부하시지 않았다.

송진파 선생은 1957년 복학 1961년까지 하유권은 고급당학교를 필히하고 동당학교 철학 강좌에 철학교원으로 떨어져 유행하게 되었다.

송진파 선생은 원래 아주 총명하시고 기억력이 특진장하여 그 당시 벌써 50세 밖에 가깝아 음에도 불구하고 당학교 전라북도 최우등으로 수료하였다. 그러나 철학 강좌에서 학위를 들으려 끝내지 못하고 다시 자기본직업에 전근되어, 각 공화국간 한인 신문 "태극노기"지의 책임주필 직위에 임명되게 되었다. 신문사에 전근 되어 자기의 예술적 기능 문학의 응용한 기교를 발휘하면서 연 십일년간 일하시고 1974년에 개별적 영예 년급생으로 넘어 갔으나, 신문에 대한 문학 창작사업을 계속하여 가며 살았다. 송진파 선생은 한인들의 생활형편, 한인들의 무로연에 있어서의 발전 전망, 한인들의 언어, 문화, 풍습, 전통들의 회복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였다. 선생은 1990 가을에 보트에서 열린 한인 문화 협회 창립대회에 참석하시었으며, 1990년 6월에는 초원에 살고 있는 한인 공후노인단 성원으로 남한을 방문하시었다. 이때 남한을 방문 하였을 때

송진파 선생은 서울에서 외려 북한시절에 힘입어
 다하여 민족건설에 여바지하던 많은 문화출판물
 제흥 친구들로 만나 눈물겨운 이야기를 (대일 시권이
 가는 줄 모르고 죽고 받고 하였으며, 또 역시 북조선
 시기에 같이 살고 있다가 현재 월남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사촌 누이 동생들, 많은 친척들을 배필
 같이 "로씨" 호혜적 여관에서 만나곤 하면서
 강좌 소련으로, 또 남한으로 상호 초청 방문할 계획
 을 짜곤 하였다.

그러나 생의 법칙이란 인간은, 그의 여 많은 정성
 끝 넣어서 귀한 성원으로 해지 않은 법이다 송진파
 선생은 남한 방북 길을 돌아와 동년 8월에
 하유권손에 와서 자기 환감을 되갚고 예
 언하시던 그어가 동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별세하시었다. 현재 모스크바엔 송진파 선생
 의 부인, 아들 딸 등 아이들이 잔치내어 있다.

1999년 12월 20일
 하유권손